
기획논문

독일이상주의와 자유의 문제

칸트(I. Kant, 1724~1804)는 “자유 개념은 [...] 순수 이성의, 그러니까 사변 이성까지를 포함한, 체계 전체 건물의 마룻돌[宗石]을 이룬다.”고 말한다. 칸트에서 ‘순수 이성의 체계’란 다름 아닌 철학이니까, 그러므로 자유 개념은 그의 전 철학의 결정 요소인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칸트 철학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칸트 이후의 거의 모든 철학, 특히 독일 이상주의 철학에서는 분명하게 그러하다.

피히테(J. G. Fichte, 1762~1814)는 자아의 자기 활동성 곧 자유에서 자기 자신과 대상 세계의 토대를 찾는다. 자아는 활동성으로서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물의 세계를 실재적인 것으로 반드시 정립해야만 한다. “자아는 자아 안에서 자아에 대해서 비아(非我)를 맞세우고” 그것에게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형식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 절대적 자아라고 불릴 수 있다. 이 절대적 자아의 바탕 위에 비아에 맞서는 자아, 곧 상대적 자아와 그의 대상으로서의 비아, 곧 세계가 정초된다.

그래서 셸링(F. W. J. Schelling, 1775~1854)은 이 절대적 자아는 “절대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 절대자 개념의 단순한 전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절대자로서 ‘나’의 자기정립이 함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의 근거는 자유라는 것이다. 피제약성은 결국 자기활동성과 그에 의한 자기정립을 배제하는 것인 만큼, 자유 없는 자기정립이란 생각할 수 없고, 순수 활동으로서 자기정립은 오

로지 절대적 자유로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아의 본질은 자유이다.”

헤겔(G. W. F. Hegel, 1770~1831)은 “정신의 본질은 그러므로 [...] 자유”라고 천명한다. 정신은 자유이고 그래서 자기정립적이며 자기활동적인 것이고, 그런 뜻에서 주체이므로 본래 무엇에 관하여 상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자이다. 그러나 정신이 삼라만상과 인간을 통하여 그 자신을 드러낼 때, 다시 말하면 매체를 통하여 전개 실현될 때, 그것은 여러 모습[相]을 보이고 그런 한에서 전변(轉變)하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정신은 실재에서는 이를테면 ‘상대적인 절대자’라 할 수 있고,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되어 가는 중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정신의 자기실현 내지 자기완성의 긴 도정이 세상의 역사, 세계사이며, 그런 점에서 세계사의 주체인 이 정신은 ‘세계정신’ 또는 ‘세계이성’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세계란 세계정신의 자기 인식 내용이며, 자기 기투(企投)와 노역(勞役)의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이 세계정신의 대표적인 매체는 인간이며, 세계정신은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대상 인식과 자기 인식 그리고 실천을 통하여 가장 잘 발현된다. 인간의 공동체인 윤리적 전체(das sittliche Ganze)로서 국가는 바로 “자유의 현실화”이며, 법의 체계인 국가는 “실현된 자유의 나라”이다.

이렇듯 ‘자유’는 독일이상주의가 전개되면서 단지 철학 체계의 ‘마룻돌’이 아니라, 인류 사회와 세계 역사의 원동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의미 연관과 사유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하는 집담회가 8회 연속(2013.3~2013.12)으로 열렸고, 여기에 함께 묶은 세 편의 논문은 그 성과의 일부로서, 『인문논총』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제 공표하는 바이다.